



국무총리비서실, 인천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간담회 개최

-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11월 7일(금) 오후 3시, 인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「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」를 개최했다.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박인규 공동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(12명)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.
- 이번 간담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‘사회대개혁위원회’의 출범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, 대구·경북(10.16.), 부산·울산·경남(10.17.), 호남(10.23.), 충청(10.14.), 경기(10.31.)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렸다.
-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은 “인천은 근현대사의 출발점이자 민주화의 현장에서 시민의 힘이 중심이 되어온 도시”라며 “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”고 밝혔다.
- 또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·정당·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, 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.
-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▲지역 내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▲순수 문화·예술 지원책 마련 ▲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.
- 오 비서관은 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 방향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, 위원회가 시민사회·정당·정부를 아우르는 열린 협력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한편,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제정안을 입법예고(10.15.~11.5.)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법제처·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.

※ (붙임)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행사 개요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시민사회지원과	책임자	과 장 전정관 (044-200-2850)
		담당자	주무관 이지숙 (044-200-2851)



□ 인천지역 간담회 개요

- 일시/장소 : 2025. 11. 7.(금), 15:00 /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
- 주최 : 국무총리비서실
- 참석자 :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, 공무원 등
- 주요내용
 - 사회대개혁위원회 설립 추진 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

